



즉시 배포용: 2021년 8월 25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아프가니스탄의 폭력과 불안정을 피해 도망친 난민 수용  
박해 또는 전쟁을 피해 도망친 개인과 가족을 수용하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가는  
뉴욕**

**아프간 난민의 재정착을 돕고 이들을 지원할 준비를 마친 뉴욕주의 난민  
지원국(Refugee Services) 및 미국 시민 등록국(Office for New Americans)**

**뉴욕에 도착한 아프간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뉴욕 시민들은 ONA  
핫라인(1-800-566-7636번)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기밀 지원, 후원 및  
서비스가 필요한 이민자들도 이 핫라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문제가 있는 국가 전체에 퍼져 있는 폭력과 불안정을 피해 도망친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도착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난민 지원국(Refugee Services) 및 미국시민 등록국(Office for New Americans)은 뉴욕에 정착하려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박해나 전쟁을 피해 도망친 사람들을 수용하는 주 정부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뉴욕주에 도착하는 아프간인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뉴욕 시민들은 미국시민 등록국(Office for New Americans) 핫라인(1-800-566-7636번)으로 연락하여 현지 서비스 제공업체와 그들이 어떤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핫라인은 또한 기밀 지원 및 후원 및 서비스 연결이 필요한 모든 이민자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가 아프가니스탄의 불안정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뉴욕은 다시 한번 희망과 피난처의 등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Hochul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난민과 이민자들이 우리 주에 가져다주는 문화와 공동체의 풍요로움은 측량할 수 없으며, 세계에 전하는 확실한 메시지는 뉴욕주가 해안 지역에서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 대통령 행정부는 미국에 수용하는 난민과 이민자 수를 대폭 줄인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에서 난민과 이민자를 수용할 수 있는 한도를 6만2,500명으로 높이는 긴급 결의안을 발표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또한 특별히 미군과 함께 일하고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아프간 번역사와 통역사를 위한 특별 이민 비자 8,000개를 추가로 승인했습니다.

뉴욕 난민 지원국(Refugee Services)은 새로 도착하는 이 아프카니스탄 사람들을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뉴욕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2020년 10월과 2021년 7월 사이, 아프가니스탄인 140명과 특별 이민 비자를 받은 추가 83명을 포함하여 458명의 난민(대부분은 아프가니스탄 출신임)들이 주 전역에 다시 정착했습니다.

뉴욕주 임시장애지원국(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의 감독을 받는 난민 지원국(Refugee Services)은 난민과 그들의 가족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송환된 시민이 안전하게 도착하도록 돕고 인신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며 동반자 없는 난민 및 미성년 입국자가 적절한 위탁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뉴욕은 2021년 연방 회계 연도 동안 1,320명의 난민과 특별 이민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소지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정부는 추가 난민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뉴욕주 전체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 제공업체 네트워크는 1년 동안 5,000명 이상의 개인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OTDA 커미셔너 Mike Hein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항상 전 세계 난민을 위한 등대가 되어왔으며, 이러한 유서 깊은 유산은 뉴욕주의 풍부한 문화적 다양성에 의해 입증됩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계속 나오는 가슴 아픈 영상들은 해외에서 안전한 피난처를 찾아 뉴욕주로 오는 모든 난민들을 돕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더욱 공고히 합니다. 우리는 자랑스럽게 그들을 우리의 공동체에 수용하고 이웃으로 포용할 것입니다."

**Rossana Rosado 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모국을 떠나 피난한 아프카니스탄 난민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뉴욕은 전 세계에서 온 이민자들과 난민들을 수용해 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아프카니스탄 난민들을 수용하고 그들이 정착하는 데 필요한 자원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러한 전통을 이어갈 것입니다. 아프카니스탄 난민들은 우리 나라를 지지해왔으며 도움이 필요한 이 절실한 시기에 우리는 그들이 뉴욕주에서 자유, 안전 및 기회를 찾을 때 지원과 연대로 그들을 환영할 것입니다."

뉴욕주 미국시민 등록국 핫라인은 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오후 8시까지 운영합니다. 모든 통화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200개 이상 언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